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류유선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류유선 · 김성곤 |



<b>센터장</b>	• 류유선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b>사업담당자</b>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b>참여 동아리</b>	• FeW • 여담(女談) • 단비 • 작당모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사업보고서**  
**2023년 지역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48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지그래픽 TEL 042-256-5055 FAX 042-625-688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CONTENTS

사업개요 ..... 03

[ FeW ] ..... 11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다

[ 여담(女談) ] ..... 51

여담의 새로운 도전, 발견, 연결 : '몸'으로 모인 여성들

[ 단비 ] ..... 71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 우리는 서로의 단비가 되어

[ 작당모의 ] ..... 93

이제 금융과 투자는 여성이 대세다.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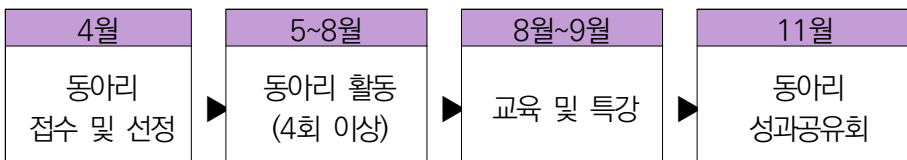
### 지역 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 사업 목적

-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쌓게 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
-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되 참여자들의 개별역량과 성인지 감수성을 배양·강화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 단체로의 성장을 유도

#### ■ 사업 대상 및 방법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며,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선발 (최대 4팀, 5인 이내)
- 각 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메인 주제의 범위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월 1회 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지원금은 매월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비로 정산
- 월 1회 담당자와의 미팅(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동 과정, 필요 자료 및 요청사항 등 공유
- 참여자들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교육 또는 특강 진행



## ■ 동아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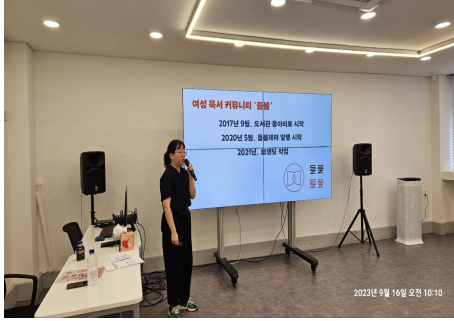
동아리명	활동 목적
FeW	가려진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여담(女談)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다
단비	단체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다
작당모의	금융과 투자는 여성이 더 잘한다. 여성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실천 모임

## ■ 사업 과정

- 오리엔테이션 (5.11, 목)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지원사업 설명 및 활동 일정 안내
  - 사업 진행 중 주의사항 설명 등



- 특강 (9.16, 토)
  - 성장과 연대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여성 독서커뮤니티 '들불'의 노혜지 대표 특강 진행
  - 『연결의 공동체 : 내일을 위한 실천』



○ 동아리 활동 (5월 ~ 8월)

동아리명	활동 요약
FeW	5.27(일) :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주제를 가진 저널 독서토론 6.12(월) : 대전지역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할 인터뷰 내용 논의 6.25(일) : 대학 성평등 동아리 회원 인터뷰 6.26(월) : 인터뷰 피드백 및 다음 일정 논의 7.10(월) : 여성운동 관련 영화 감상, 인터뷰 대상자 선정 7.18(화) : 인터뷰 질문 작성, FeW 활동 주제 점검 7.28(금) : 영화 감상, 대학 여성주의 동아리 회원 인터뷰 8.04(금) : 대전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인터뷰 8.05(토) : 인터뷰 내용 정리 및 편집 8.10(목) : 여성 창작집단 '페이지'의 '거절하는 방법' 연극 관람 8.12(토) : 인터뷰 내용 구성 논의 8.18(금) : 인터뷰집 디자인 및 최종 제목 선정 8.19(토) : 여성 창작집단 '페이지' 구성원 인터뷰 8.26(토) : 동아리 운영 관련 회의
여담(女談)	5.20(토) : 단비 체육대회에서 '여담' 부스 운영 6.04(일) : 야외요가 클래스 '부단히' 진행 6.06(화) : 야외요가 클래스 '부단히' 진행 6.17(토) : 여성영화 '그 여름' 관람 7.18(화) : 북 토크 행사(8월 예정) 준비사항 논의 7.22(토) : 여성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관람 8.05(토) : 북 토크 질문지 작성 및 행사 진행 준비 8.27(일) : 북 토크 진행.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저자 치도.

동아리명	활동 요약
단비	5.20(토) : 단비 체육대회 개최, 참여인원 약 120명 6.24(토) : 여성 단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토론 6.29(목) : 5월 체육대회 영상 제작 7.30(일) : 레이저 태그 건 서바이벌 진행 및 9월 행사 논의 8.26(토) : 여자씨름 체험 및 대전씨름스포츠 클럽 대표 인터뷰 8.26(토) : 레이저 태그 건 서바이벌 진행
작당모의	5.06(토) :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 하기> 독서토론 6.17(토) :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독서토론 7.01(토) : 경제 보드게임으로 시장 원리 이해하기 8.12(토) :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독서토론 2 8.26(토) : 투자 종목 분석 및 동아리 지속발전을 위한 토론





후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임동조합극단놀이터 주최주관세탁 : 7 이상창차집단레이

#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2023. 8. 9(수) ~ 13(일)  
평일 : 19시30분, 주말 : 10시  
드림아트홀

QR Code

내부/제1강거절하는방법  
문의: 010-2685-6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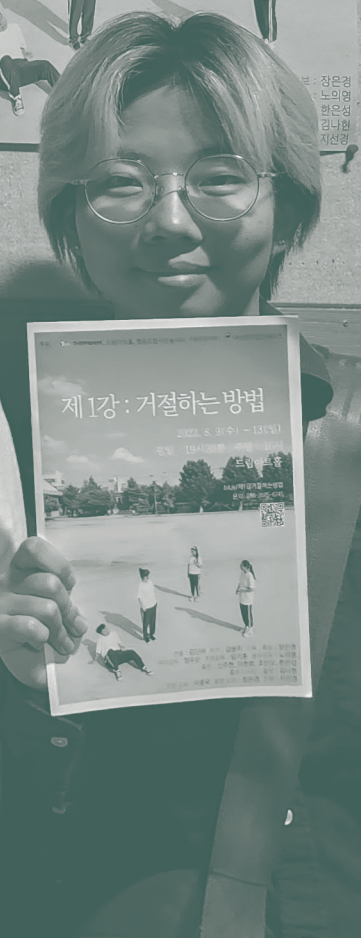
후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드림아트홀, 임동조합극단놀이터 주최주관세탁 : 7 이상창차집단레이

#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2023. 8. 9(수) ~ 13(일)  
평일 : 19시30분, 주말 : 16시  
드림아트홀

bilibili/제1강거절하는방법  
문의: 010-2685-6745  
QR Code

진은리  
노의영  
한은성  
김다원  
지선경



후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임동조합극단놀이터 주최주관세탁 : 7 이상창차집단레이

#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2023. 8. 9(수) ~ 13(일)  
평일 : 19시30분, 주말 : 10시  
드림아트홀

QR Code

내부/제1강거절하는방법  
문의: 010-2685-6745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이

[ FeW ]

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여성의 이야기를 만나



##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 [ FeW ]

학내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학생들의 모임인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 소속 세 사람이 동아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이름입니다. Feminist Women의 약자입니다. 소수의 이야기가 모여 확장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다<sup>1)</sup>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빅웨이브의 세 사람이 모여 여성 네트워크를 주제로 인터뷰집을 제작했습니다. 대전지역 대학교의 여성주의 동아리 두 곳과 대전에서 활동하는 두 단체에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찾아가서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 네트워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 박세윤

'잘 먹고 잘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BIGWAVE의 평회원이었습니다.

#### 박한비

BIGWAVE에서 제일 웃긴 회장입니다.

#### 송영서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BIGWAVE의 부회장입니다.

##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

박세윤

FeW가 처음에 기획했던 동아리 활동은 인터뷰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논문과 영화를 본 후 토의하는 것이 주된 활동 계획이었다. 그러나 콘텐츠 감상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 물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들과 미인대회 방해 공작을 펼치던 여성들이 보였다.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따라서 대전 여성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빅웨이브의 위기에 도움을 줄 팁을 얻기 위해 다른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변경했다.

없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유진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점이다. ‘유진이들’과는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의 결실과 운영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상태지만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답변이 인상 깊었다. 끝은 정말 끝일뿐이라고 생각했던 태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험을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마무리한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조합해서 다음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체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다. 빅웨이브의 전임 회장과와의 인터뷰와 ‘들불’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 동아리원들이 원하는 활동과 동아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도움 된다는 조언을 얻었다. 재미있는 활동을 원한다면 재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분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의 빅웨이브 활동은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내가 만들거나 참여할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조언이었다. 티움에게서는 여성 대상 폭력에 맞서온 단체와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페이지의 인터뷰는 여성 예술인이 만들어낼 여성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여성 네트워크는 여성을 끌어당긴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나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 채용 성차별 기사나 여성이 살해된 소식을 우연히 접했을 때, 일상적인 여성 혐오에 지쳤을 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존재만으로 무력함을 떨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이 많은 곳에 모인다. 성평등 동아리 활동은 이런 시각을 가진 모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 청년의 필요와 욕구에 대전시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확대된다면 대전에 뿌리내릴 여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 그래도 앞으로도 영원히

박한비

FeW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먼저 '여성과 역사' 저널 속의 논문을 동아리원들과 함께 읽고 토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작년 2022년에 교양 수업 '페미니즘과 고전' 강의에서 고려의 양측적 친족 제도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학술적이고 흥미로워서 대학 공부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던 거 같다. 그래서 우리 BIGWAVE 회원들과 '여성과 역사' 저널 속의 논문 읽고 싶어져서 대전세종연구원 성평등 동아리 사업에 관심이 생겼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역시 식민지와 가부장제의 공존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서평) 읽기였다. 팀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어떤 부분은 생각이 같아서 재밌었다. 한국군에도 '위안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에 가부장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인터뷰 중에서 '90년생 유진이들'의 마리솔님과 '여성인권티움'의 솔님이 응원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지만 마리솔님이 '90년생 유진이들'을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실패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 우리도 이번 학기까진 활

동을 이어 나가겠지만 신규 회원도 적고 기존 회원도 적지 않은 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성인권티움' 솔님이 마지막으로 BIGWAVE에게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고 하신 것,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게 마음 깊이 도움이 되어 기억에 남는다. 또한, 만들어 두었지만 사용하지 않게 된 BIGWAVE 노선 홈페이지를 FeW의 대전 여성 네트워크 인터뷰집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가인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오가며 활동하느라 일정을 조율하기 힘들어서 대면 인터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과 인터뷰집 홍보 기간을 놓쳐서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다음에는 논문도 더 많이 읽어 보고 싶다. 그래도 평소에 못 해본 걸 해봐서 좋았다. 앞으로 팀원들이랑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전 이곳저곳에서 다른 여성 단체,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

여성 네트워크는 나를 나답게 만든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며 산다. 그래서 나에겐 내가 활발해질 수 있고 가끔은 선을 넘어서 혼도 나 보는 곳이 있는 게 참 소중한데. 따라서 앞으로도 여성 네트워크를 찾아다닐 것이고 내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곳, 드러내도 괜찮은 곳을 많이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 흠어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로 완성될 때

송영서

동아리 선배들이 작년에 성평등 동아리 활동이 정말 유익했다고 추천해줘서 참여하게 되었다. 동아리 회원들과 모여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평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전 지역 내 다양한 단체 혹은 개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기대되었다.

이번 기회에 다른 단체나 동아리의 활동방식을 알아보고 흠어져 있는 여성주의 단체들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우리 동아리와 접점이 있었던 단체, 타대학 여성주의 동아리 등 다양한 곳에 인터뷰 제안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4개의 단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역 내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과 동아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90년대생 유진이들’은 지금은 사라진 동아리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동아리가 대폭 인원감축되어서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비록 동아리는 해체되었을지라도 아무도 실패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획기적인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리와 달리 사단법인 반성매매 운동단체인 ‘티움’은 규모가 크고 활동가분들이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활동하면서 힘들 때 대처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변화에 진전이 없다고 느낄 때, 분노와 무력감에 잠식되기 보단 가능성을 보고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을 조언해 주셨다. 우리 동아리에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페이지’는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연극으로 먼저 접했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서 창작자로 활동하면서 겪는 일들 위주로 질문했다. ‘페이지’는 창작자 집단으로 작사 소모임, 테마 공방, 공연 및 토크쇼 등을 진행한 점이 신선했고 문화예술 분야라 자유로운 분위기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성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기보단 쉽고 재밌게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여성 네트워크는 여성들 간의 연결고리이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이다. 이처럼 성평등을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성평등과 인권에 관해 깊이 고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성평등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간에 동아리 활동 방향을 인터뷰집으로 바꾼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저널을 읽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소제목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담당자님께 질문을 많이 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박세윤**

우리가 바빠서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한 게 아쉽다. 정기적으로 날짜나 요일을 정하고 모였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박한비**

인터뷰 말고 논문을 읽거나 콘텐츠를 비평하는 활동도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인터뷰집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송영서**

## 활동 결과물 인터뷰집



노선웹페이지

### 대전 여성 네트워크 인터뷰집

-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
- 여성대상 폭력과 차별에 맞서 활동하는 여성인권티움
- 대전여성창작집단 페이즈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빅웨이브의 인터뷰집 프로젝트입니다.  
대전에서 활동했거나 지금도 활동중인 단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90년대생 유진이들」

90년대생 유진이들은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입니다. 2017년에 결성되어 페미니즘 독서 활동, 논문 읽기, 학교 축제 부스 운영,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마리솔님과는 대학 내 페미니즘 활동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FeW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리솔 대학생 때는 충청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배재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90년대생 유진이들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 위원회, 충북 이주여성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FeW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해주세요.

마리솔 책 모임을 만들려다가 교내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배재대학교 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동아리로 만들었어요. 90년대생 여성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유진이고 저희 모두 90년대생이었기 때문에 90년대생 유진이가 되었어요. 당시 주 1회 대면 모임을 진행하면서 독서, 토론, 화장실 내 위생용품 설치하기, 영화 감상, 면생리대 제작, 외부 강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필요해서 교내 공모전 사업에도 참여했어요. 방학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외부 시위, 워크숍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FeW 당시 동아리 내에서 중요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마리솔 2018년도에 4B운동, 탈코르셋 운동이 한창 시작할 시기여서 관련 논의와 강연을 많이 했어요.

FeW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마리솔 첫 번째로, 총동아리랑 마찰이 있었어요. 페미니즘 동아리라는 명칭에 문제 제기를 받아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대신 소모임으로 명칭을 바꿨고, 가동아리 신청도 떨어졌어요. 가동아리나 정동아리가 아니어서 동아리방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점과 학생들이 동아리에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점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페미니즘 동아리는 가동아리나 정동아리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있으면

동아리원들이 소속감이나 친분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어설피게라도 동아리에 걸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회원들이 감소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 당시에 4B와 탈코르셋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원들 각자마다 그 논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속도가 달랐어요. 하지만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탈코르셋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여러 회원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동아리 내 특정 인원을 향해 “페미니스트이면 무조건 탈코르셋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와 같은 비난도 해서 동아리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발언과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세 번째로, 회원모집이 어려웠어요. 커뮤니티 내에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친목을 다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희 동아리가 활동 지향적이니까 지향점이 달라서 금방 나가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어요. 정식 동아리가 아니라서 교내 학습 모임, 비교과 모임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강연을 주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FeW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리솔 고립감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대부분 논의가 활발한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교내에서 페미니즘 관련 논의를 할 자리가 없었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의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의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90년대까지는 여학생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활동할 당시에는 없어서, 우리 동아리가 여학생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FeW 17-18년도 당시 교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마리솔 당시에 탈코르셋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각자 결심하고 실천하는

속도가 달랐어요. 탈코르셋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로 낙인 찍히는 것에 두려움이 컸어요.

FeW 탈코르셋을 실천하면 낙인이 찍혀서 두려웠다는 것인가요?

마리솔 실천을 해도, 안 해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탈코르셋을 하면 남성들에게 비난받고 탈코르셋을 하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비난 받았어요. 그래서 동아리 초기에 저희가 설명회를 총 두 번 했었어요. 당시 참여율은 높았지만, 가입률이 그에 못 미쳤는데, 여성들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페미니스트’ 낙인이 찍히는 걸 두려워했던 것이 큰 이유였어요.

FeW 몇 년 전에 비해 최근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신입 모집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솔 첫 번째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최근 들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백래시가 잘 보였고 예전에 비해 페미니스트들의 발언권이 줄었다고 느껴져요. 그로 인해 예전이라면 정제된 발언을 하거나 그릇된 성인식을 숨겼더라면 요즘엔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회적 맥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에도 유행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90년대생 유진이들이나 빅웨이브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교내 페미니즘 동아리가 많이 생겼고, 미투 운동, 불용 시위, 비웨이브 시위 등 오프라인 시위와 더불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시류를 보면 환경 단체나 기후 위기 동아리 등이 많은데요, 유행의 한 흐름 중 하나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의제도 많고 내부와 외부 모두 비판이 많은데 환경 문제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실천을 하면 되니까 저항이 적고 반박하는 사람도 적다고 생각해요. 반면 페미니즘은 내부에서도 관례가 다양하고 4B나 탈코르셋은 타인의 시선을 감당하고 타인과 대립해서 이겨내야 하잖아요. 저희가 생리대 관련 사업을 했을 때는 남성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없었지만 다른 활동은 대체로 반발이 많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에 대한 페미니즘적 잣대가 많이 생겨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페미니즘 의제에 피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즘 동아리의 신입 회원이 적은 이유 중에 동아리의 스탠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 또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여성의 목소리가 표출되었던 시기입니다. 여전히 여성의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도 여성들이 동아리에 관심이 식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FeW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리솔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걸쳐 있는, 활동보다는 친목의 목적을 가진 회원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아리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활동에 계속 노출시키고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동아리를 유지하고 후배를 키워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진이 회원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단체를 운영하는데 경력자는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다가가고, 제안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FeW '90년대생 유진이들' 말고 총여학생회, 공대 여학생회 같이 여학생들이 만들어서 운영했던 조직이 있나요?

마리솔 여학생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교내에 학습, 비교과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원금 뿐만 아니라 상금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임들은 간호학과, 가정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같이 여성이 과반수 이상인 학과 내에서 여성들끼리 모인 것

같았어요. 그런 것 말고 따로 활동이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 동아리는 없었어요.

FeW 대전지역에서 성평등 동아리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마리솔 지역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성들이 존재하는 한 페미니스트는 어디에나 있으며, 커뮤니티와 활동에 굶주린 페미니스트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향이 대전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로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FeW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리솔 대학생 때의 활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각자의 마음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에서 나오거나, 졸업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좋은 여성들을 만나더라고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작은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 ☆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될 때까지.

빅웨이브는 2018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로, 페미니즘 의제 토의, 독서 모임, 2023년 여성의 공간 포럼, 3월 8일 여성의 날 대전 공동행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영우님과과는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 방향을 주제로 인터뷰했습니다.

FeW 동아리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영우 처음에는 일반회원이었다가 집행부에 들어가서 회계 담당을 하였고 그 이후 회장직을 맡았어요.

FeW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가장 기억나는 활동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영우 가장 기억 나는 활동은 동아리 내에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에 관한 공부를 한 것과 20년도에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회원마다 각자 가치관이 달랐던 점이에요. 동아리 내에서 단순히 술 마시고 친목 활동을 하면서 놀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기자회견이나 연대모임 같은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활동을 하느라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게 동아리 모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처럼 동아리 내부 구성원 간 기대하는 바나 추구하는 게 달랐고 각자 지향점이 달라서 어떤 부분을 주제로 토론하고 싶은지 조정하기 어려웠어요.

FeW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나요?

영우 동아리 내부에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간담회, 강연, 기자회견 등은 동아리라는 공동체로서 참가할 수 있어서 유의미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 독서토론이 가능한 소모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소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혼자가 아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FeW 페미니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우 지속 가능한 동아리를 유지하려면 동아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가 주최하는 강연, 사업, 축제, 캠페인 등이 다채로워야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정리하자면, 동아리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빅웨이브의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기존 18~19년도에는 학내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강연과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 무엇인지 가시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동아리만의 특색이 없고 온라인이 발달한 세상에서 극 외향형이 아닌 이상 동아리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동아리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굳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집단으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FeW 빅웨이브가 신입을 모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영우 신입회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빅웨이브가 신입회원이 많았던 시절에는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했고 실제로 모여서 논제를 발화하고 모이기 위한 공간에 대한 열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도 멈추었고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낮아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신입이라면 어떤 활동을 보고 이 동아리에 들어올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주의 실천동아리라는 이유만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동아리 이름만 인쇄된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등은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홍보 효과가 미미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활동만 하지 말고 동아리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동아리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 위주로 해야 합니다. 동아리 내부에서 공동체만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다른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합니다.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공동체 구성원들 간 합의가 필요해요.

FeW 당시 학내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영우 공학이다 보니 남성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내가 페미니스트로 보이면 어떡하지?’ ,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어찌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는데 결국은 전자가 이겼어요. 이 지점에 있어서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이 나이가 더 많아서 권력 위계의 높은 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별 격차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동아리의 주 활동 중 하나가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인 2022년에 여성 위인 퀴즈 맞추기, 월경을 주제로 축제 부스를 기획해서 제출했지만, 특정 사상 및 종교를 주제로 한 동아리 부스는 적절하지 않다며 무산 당했어요. 축제 운영진 측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배제

한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고 특정 사상과 종교를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분위기로 바뀐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코로나로 오프라인 활동의 명맥이 끊기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새로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저항하고 항의해야 하는지 방법을 의논하지 못하고 단절되어버렸어요. 또한, 페미니즘이 코로나를 겪고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된 시기 이후, 연대의 의미가 희석되었고 집단적 실천(낙태죄 폐지, 비웨이브 시위, 불편한 용기)<sup>2)</sup>에서 개인적 실천(개인적 성취) 위주로 바뀌면서 페미니즘의 열기도 줄어들었어요.

FeW 비웨이브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우 지금은 동아리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제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8~19년도 당시에는 또래 친구들과 친목 활동을 비롯해서 토론, 사회 참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동아리 내부에서 또래, 저학년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이 많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 시위,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다른 여성 연대 단체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의 슬로건인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처럼 개개인이 모여 영향력 있는 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FeW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역이라서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영우 대중교통이 수도권만큼 발달하진 않아서 지역 내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어려웠고 절대적 인원이 적어서 다인원이 주는 분위기를 누릴 수 없었어요. 수도권에서 시위, 캠페인 같은 활동에 참여 제안을 받아도 지방이라서 수도권에 비해 참가하기 위한 시간과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또한, 페미니즘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적은 게

---

2) \* 비웨이브 시위: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 불편한 용기 시위: 사법부의 성차별적 판결과 불법촬영을 규탄한 시위

아쉬워요.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항하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페미니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특수적인 지역 격차에 대한 논의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FeW 여성들만의 동아리나 단체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영우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발화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남자 없는 공간은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여성들 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여성들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서로가 불평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여성들만의 모임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여성들만의 동아리와 단체가 존재하고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FeW 여성주의 동아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영우 단체 내에서 솔직하게 발화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발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또한, 친밀도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발화가 선택적, 편파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고르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가령 미국에서 페미니즘을 백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한 흑인 여성들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서울 여성들의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의 페미니즘을 언급한다거나 청년 여성으로 포괄되는 것 말고 다양한 삶의 페미니즘을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정 계층 위주의 페미니즘만 수면 위에 보이는데 이것을 넘어 앞으로 다양한 세대와 지방에서의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모였다면 그 감정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토론의 장

을 마련한다면 각자 고유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옮겨졌고 동아리나 단체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평등한 대화를 위한 약속을 만들고 다른 조직의 사례를 찾아보고, 좋은 점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어떤 점은 아쉬우니까 우리 동아리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봐야 해요.

FeW 동아리 내에서 페미니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우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혹은 ‘SHARE’(재생산권 논의) 등 다양한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들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위치성은 무엇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어떤 입장이 더 맞는 말 같은지, 반대 의견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알고리즘의 확증편향으로 나의 정치적 의견을 확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FeW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영우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는 왜 페미니즘 동아리를 하는가?’ ‘앞으로 이 페미니즘 동아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아리 참가한 이유와 동아리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 「대전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인권티움은 여성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10년에 창립되었으며 부설기관으로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와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냥 공방',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다락'이 있습니다. 활동가 솔님과 함께 티움이 대전에서 만들어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FeW 대전여성인권티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솔 티움은 대전 지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여성 단체이고요, 대전 여민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군산에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연달아서 생기면서 성매매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성매매특별법 제정 활동을 하면서 느티나무상담소를 시작하고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2010년에 대전 여민회에서 분화하여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을 창립하게 되었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 단체입니다.

FeW 그렇군요. 대전여성인권티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솔 저는 대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다락'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는 상담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성 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연계도 해요. 자립,자활 지원이라고 하는데, 검정고시 학원을 지원해 주거나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eW 코로나 기간에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여성주의 단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티움은 법인이라서 그 영향이 덜 했던 것 같지만, 오프라인 활동이 뜸해졌을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 코로나가 절정일 때는 저는 성인 여성들을 만나는 느티나무상담소에 있었  
고요. 상담소에서 홍보 업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티움도 코로나 때 제약  
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3일이 있는 주는 성매매 추방 주간이라  
고 해서 전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조직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을 하는데, 코로나 때는 다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제약이 있으니까 온라인  
캠페인으로 변경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티움에 성매매 관련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코로나 때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봉명동이랑 유성온천  
역 쪽 유흥주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활동을 해요. 업소마다 찾아다니  
는데, 느티나무 상담소 전화번호를 붙인 물품을 가지고 가서 대기실에 있  
는 언니들한테 설명하죠. “이런 기관이 있고, 언니들 상담도 지원하고요,  
자격증 취득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아웃리치(현장 방  
문 활동)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듣성듣성하게 되는 거예요, 집합금지  
조치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사지 업소가 엄청 많이 생  
겼어요. 눈에 띄게. 근데 마사지 업소는 접근이 어려워요. 유흥주점처럼  
별도의 대기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서로 마주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 대기하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유흥지점은 대기실에 가면 언니들이 다 계  
시는데, (마사지 업소는) 그렇지 않아서요.

특히 ‘스웨디시’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가 많고, ‘20대 한국인 관리자’  
이런 식의 문구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성매매 후기 사이트나 마  
사지 후기 사이트를 찾아서 ‘스웨디시’라는 곳에서 유사 성행위같은, 마사  
지를 가장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알게 돼서 실태 조사를 하고 심각  
성을 파악했는데, 캠페인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  
을지 고민하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담고 마지막에  
‘생활환경 근처에서 발견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영업이 의심  
되는 업소를 제보해 달라’는 참여형 캠페인 활동을 했던 적 있어요. 이것  
외에 티움도 ‘생각 티움’이라고 회원 소모임을 원래 계속해왔는데 코로나  
때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단 중이에요. 대면활동  
이 제약이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이 많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다  
같이 유성온천역에 모여서 행진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는 제한이 있어



서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아카이빙 사업을 했고 연장선상에서 전시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링크랑 큐알코드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했어요.

FeW 그런데 아웃리치가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걸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요?

솔 아웃리치는 성매매 업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지요. 아웃리치로 업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으로 구매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업소가 사라지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성산업구조 상 가장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편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FeW 사람들이 성매매, 성착취 구조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저희도 여성주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하고, 변화에 진전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님은 활동가이시다 보니 이런 분노와 무력감을 학생인 저희보다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솔 반성매매 활동을 하면, 저와 생각이 다른,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자주 만나요. 혹은 성매매에 대한 무관심으로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도 마주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무력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는 많이 무력했어요. 근데 무력하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운동을 안 하면 우리가 지는 거니까, '힘이 빠질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만 얘기하면서 충전하고 서로 확신을 주자.'

그런 생각이 들고 ‘충전이 되면 설명하자. 설명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설명하자. 부유하는 층의 무지에서 오는 선입견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설명하자.’ 그 외에 ‘난공불락’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의 대화로 이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자. 한 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보고 내가 했어야 했다고 자책하지 말자. 저는 분노와 무력감, 부정적인 정서만으로 오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가더라도 활동하는 내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러다가 하얗게 잣가루가 되어버리면 그들이 이기잖아요.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자.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들을만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들이 나와의 짧은 대화로 변할 거였으면 이 사람은 이 상태로 내 앞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타 버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FeW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촉구, 무한발설 북토크, 〈3.8 여성의 날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공동행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인상 깊었던 연대가 있을까요?

솔 다 저마다의 의미로 인상 깊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8 공동행동 때는 다양한 여성 사안을 다루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반성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이슈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성주의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운동을 현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 내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FeW 확실히 온라인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솔 네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전국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3·8 공동행동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라는 것이 있어요. 티움도 소속되어 있는데 매년 9.23 성매매추방주간이 되면 전국연대가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때는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뜨겁게 지역별로 다 최선을 다해서 활동한다는 사실에 힘을 받고요. 또 무한발설 북토크 때는 당사자 활동가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많이 배우는 장이 되기도 해요. 내 안에서 설득의 언어가 정리되고 확신이 생기는 자리예요. 몽치 활동, 3·8 공동행동, 전국연대에서 모두 좀 다른 느낌으로 연대와 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FeW 여기 대전에서 반성매매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올해 과제는 무엇일까요?

솔 해마다 시급한 과제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올해 과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대전역 집결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올해도 대전역 집결지가 사안이죠. 그래서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사안으로 가지고 가려고 작년에는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아카이빙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무언가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지도를 만들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걷기 품’을 만들어서 미션을 주면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커피 쿠폰을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해보자는 계획이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도까지는 만들어진 상태예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사라질지도’라는 이름으로. 그걸 보며 이곳을 걷고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민들이 제출한 사진 자체가 자료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하고 재미있고 인상 깊은 사진들이 모일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 후기도 엮어서 결과집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FeW 올해도 대전역 성매매집결지가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단체,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 시민과 단체 같은 경우는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죠.

FeW 관심과 연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솔 가장 좋은 건 참여. 참여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매매 사안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들으셨을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엔 더 실질적인 해결책. 해결을 위한 고민과 고민의 연장선으로 실천. 실질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죠. 자세하게 들어가면, 집결지 내 여성들을 위한 예산 마련부터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집결지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성매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요. 여성들의 주거와 최소한의 생계비, 탈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집결지 폐쇄 사안에 약간 관심이 조금 흐려졌어요. 자활 지원 조례도 얘기가 나오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티움은 시민과 다양한 단체와 연대해서 특정 이슈에 대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FeW 정책 토론회 같은 건 올해는 안 하나요?

솔 그거는 원래 시에서 하지 않아요. 티움이 기획하고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련된 분을 토론자로 부르는 거죠.

FeW 지자체가 먼저 나서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솔 그렇죠. 지자체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지 않고서는 먼저 나서진 않아요. 인 권이나 성평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 지방정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관심과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 환경 적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활동가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FeW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이에요. 캠페인, ‘도시 의 섬’ 책과 전시회, 지하철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셨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홍보방식은 무엇인가요?

솔 무엇을 효과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람들 에게 우리 단체의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자주 노출되는 게 중요하기 때 문에 온라인 캠페인이 좋은 것 같고요, 깊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아 무래도 참여형 홍보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이 무언가에 참여를 하기까지 단체 이름을 많 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출되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빅웨이브가 주최한 활동에 참여하기까지는 빅웨이브라는 이름을 많이 들 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병행하 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FeW 참여형 홍보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시나요? 늘 하시는 분만 오시지 않나요?

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새로운 얼굴들이 군데군데 섞여있기는 해요. 이게 약간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보는 분, 거의 매번 오시는 분이 한쪽에 있고, 한 번도 본 적 이 없는 분이 다른 한쪽에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저희의 활동에 공감하고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을 들이는 분들은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외에 참여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올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부유하는 층을 포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운동은 결국은 영역을 넓히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해야 소멸되지 않으니까. 죽었다 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금방 지치고 효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페미니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지역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요'라고 타겟팅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겟이 명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더라고요.

FeW 다음 질문은 지하철 옥외광고 질문입니다. 티움은 대전 지하철역에 반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걸 봤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광고를 보면 반기웠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게시되는 건가요? 혹시 또 대학생 또는 활동가가 아닌 분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 중이신 게 있나요?

솔 이 광고는 올해 연말까지 게시되고 이거는 대전시의 홍보매체 지원사업이고 대전시가 대전대 디자인과 학생들을 섭외해서 매칭을 해줬어요. 전에는 한밭대 디자인과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올해는 대전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활동 말고 그냥 대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티움 부설기관인 느티나무 상담소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역의 대학교에 찾아가서 티움과 반성매매 이슈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대전대학교 성문화 축제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항상 다양한 분들,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동아리에서 먼저 해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축제 부스 같은 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eW 그럼 지금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티움과 교류하는 여성주의 동아리는 있나요?

솔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동아리가 있지는 않고, 빅웨이브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연대를 자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주의 동아리랑 연대한다기보다 학교에 인권 주간이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인권주간에 주최 측에서 티움에 참여 요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카이스트 내에 다양한 동아리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모이는 활동은 없어요.

FeW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활동가가 아닌 학생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성매매 활동이 있을까요?

솔 티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티움 sns를 기획이 되면 팔로우하고,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 주실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대전의 성매매 사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길을 건다 발견한 성매매 광고 전단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시민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트위터에 있는 성매매, 성착취 유인 트윗을 올리는 계정을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볼 수 있겠죠.

제 친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현장 방문 활동이 인상 깊으신가 봐요. 그래서 현장 방문 활동 혹시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요즘 성산업 지형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어요.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예전에 러시아 여성들이 있는 업소가 봉명동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참여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는 거죠.

FeW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신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 민원을 어느 수위로 넣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관할 구청에 해당 거주민으로서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으로서 시청에도 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루트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

어요. 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신고 활동을 좀 기획해보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어요.

FeW 저도 대전 말고 다른 지방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유의미한 답변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 고민했거든요.

솔 뭐든지 한 명은 힘이 없어요. 여성 관련 의제는 항상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한 명은 힘이 없어서 단체가 꾸려지는 거고 개인들이 연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민원 제기 활동도 처음에 한 명이 전화했을 때 받는 온도랑 10명이 전화했을 때 받는 온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보면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FeW 그렇군요. 활동가라는 직업이 일반 직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념이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활동가라는 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솔 저는 동료 활동가들과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티움에 26살 3월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31살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들어왔고 지금의 저는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키웠는가’ 생각해봤을 때 같이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들과 내가 만난 언니들이 나를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떠올라요. 가령 그때는 운전도 할 줄 몰라서 언니들이 자기 차로 어디 갔다가 저를 사무실 앞에 내려주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 언니들이 대신 주차해주기도 하고. 언니들이랑 주로 일대일로 있으니까 “언니, 인생이랑 뭘까?” 이런 이야기도 나뉘요. 그런 순간이 정말, 같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감정이 훅 차올라요. 마음이 맞닿는다는 느낌이 들 때 훅 차올라요. 그리고 동료 활동가들한테는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해요. 이들의 진정성과 능력.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내 동료 활동가가 진정성 있다고 느껴질 때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빅웨이브도 활동을 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여성주의 관점도 일종의 스펙트럼이잖아요. 완성형의 모델은 없지만, 이해도나 깊이가 스펙트럼처럼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갈래를 타고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엄청 감동적이죠.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FeW 인상 깊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솔 빅웨이브에게 하고 싶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빅웨이브에서 '지역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기획할 때 빅웨이브가 가진 고민이 깊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대학교 내의 학생으로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무력감, 위축되는 상황, 더 나아가서 위협감까지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아리 회원들이라고 하나요? 함께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 고민이 저한테 가깝게 느껴졌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사라지지 않고 오래 번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고 싶었어요. 동아리 규모가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건의 차이, 공감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함께하진 않지만 숨어서 응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를 계속 가지면서 지역에서 여성 의제로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티움에 문을 두드려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FeW 동아리 운영진이 들으면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솔 운영진 파이팅.

FeW 인터뷰집을 읽게 될 대전시민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    티움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수많은 빈곤한 여성들이 성매매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 대전여성창작집단 「페이즈」

Faze는 대전지역 여성 창작자 네트워크로 공연, 연극기획, 작사 소모임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ze의 산호님과는 대전에서 창작자로 활동한 경험과 여성창작 집단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FeW 간단하게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산호 페이즈는 Female gaze의 약자로 여성의 시선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단체입니다. 2019년도에 그림, 음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가사 그림책을 만드는 협업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성 프리랜서들끼리 모여서 여성 창작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여성창작자들이 임파워링 할 수 있는 여성창작집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즈에서 문화예술 기획을 맡고 있어요.

FeW 페이즈의 로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산호 알파벳 f에 눈을 그려 넣어서 여성의 시선을 나타낸 거예요.

FeW 여성창작자들이 모여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산호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작년에 ‘빵과 장미 그리고 ㅁㅁ’3이라고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으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공연과 토크쇼를 했어요. 여성의 날 당일에 진행해서 다른 큰 행사와 겹쳤는데도 저희 공연에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저희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오픈된 곳에선 하지 못하

---

3)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을 하고 여성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 토크쇼

는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서 토크가 재밌었어요. 저희 공연에 오셨던 분들과 뒷풀이도 함께 했는데 그 중 어떤 분이 ‘페이지에는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셨어요. 그때 들은 말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FeW 그렇다면 올해(2023년)에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산호 연극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이랑 매해 작사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미오래 관사촌에 있는 테미 공방이 있거든요, 그 공방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행사나 기획을 많이 못 했어요. 아무래도 올해는 지원 사업을 못 받아서 생업을 해야 하니까 작년에 비해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는 것과 연극, 이 두 가지는 꼭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큼직한 기획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보려고 해요.

FeW 창작을 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산호 제 첫 개인 프로젝트가 작사 소모임인 ‘사부작 사부작’이에요. 그게 사부작 사부작 해서 중의적 의미가 있고요. 원래 같이 작사하고 글을 쓰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기획했는데 참여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치유되면서 좋았어요. 모임원 중에 노래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계셔서 작사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주셨어요. 단체곡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기획했을 때 작사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내면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임에 음악을 하시다가 쉬는 중이신 분들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창작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노래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모임에 정말 우연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FeW 작사도 하시고 테미공방에서 하신 것도 많은데 이번에는 연극을 선택하

신 계기가 있을까요?

산호 제가 작년에 연극을 처음 해봤어요. 제 지인께서 대전에서 연극 치료사도 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께서 작년에 대전 여성 장애인 자전공연 '진희의 꿈'을 연출하셨고 제가 기획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연극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 연극을 지역에서 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구요. 들이는 품이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 재밌지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연극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진희의 꿈'을 하면서 조연출을 맡으신 단비님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여성 청소년 퀴어 연극을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올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창작 활동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서 문화재단 연극 부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텀블벅으로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성공해서 이번에 연극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는 연극이든 음악이든 예술 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들어있으면 장르 상관없이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이번 연극도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FeW 이번에 텀블벅으로 얻은 금액만으로 연극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겠어요.

산호 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굿즈도 만들었어요. 굿즈로 팔찌를 만들었는데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투자했어요.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렸는데, 직접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공연 하루 전날 밤까지 굿즈를 만들었거든요. 제작비가 0인 상태에서 텀블벅으로 제작비를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연극을 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함께 해주시는 배우, 스텝 분들에게도 인건비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죄송스러웠어요. 그럼에도 작품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느낀 점은 지원 사업

없이 연극하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제작비는 많이 드는 데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연극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도 거의 만원인데 삼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극을 직접 해보니까 장르 특성상 사전 작업도 필요하고 매 순간 라이브로 연기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만 원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FeW 대전, 충청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이기 때문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산호 대전은 조용하고 느려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획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대전에서 이런 프로그램 해줘서 고맙다거나 대전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말해주면 되게 고맙죠. 아쉬운 점은 문화예술 기준으로 너무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FeW 저희가 생각할 때 창작자는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혼자 작업하실 때랑 팀으로 활동할 때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산호 저희는 항상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있을 때 같이 모이는 편이에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서 반반이거든요. 개인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자유로워서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소통하는 과정도 재밌는 건데 그게 빠지니까 외롭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같이 하면 재밌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혼자 생각했으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데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하면 더 효

울적이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다들 생업이 있으니까 완전한 팀으로 활동하진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팀으로 활동해서 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FeW 페이지는 여성 창작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셨는데요, 이런 연대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팀이 있을까요?

산호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생계 유지는 할 수 있어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팀을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작년에 일을 5개를 했어요. 페이지 활동이 좋아서 계속했던 것인데 수입이 아예 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되더라고요. 올해 활동을 많이 못 한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일을 다 끝내고 좀 쉬어야지 했는데 일이 안 들어오기도 했고 번아웃이 와서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지속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아동바동 버텨서 지속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 모임은 돈을 벌기 위한 모임이라기 보단 활동하면서 나 자신을 찾고 위안받는 안식처여서 유지하고 싶어요. 대전에 다른 여성 창작자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를 꼭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돈이 안돼도 괜찮으니까 유지만 하자고 했는데 유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이지를 유지하려면 이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한 만큼의 활동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 시간과 노동을 쓰면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내년에는 인건비 사업을 받아서 다 같이 활동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돈과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모임이 사라져도 같이 모임을 한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슷한 형태로 한 게 있었는데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잘 안 만나게 되고 흐지부지되었어요. 저한테도 활동이 필요하고 소중한니까 다른 사람들도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FeW 문화예술노동 특성상 불안정한 수익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어떤 것을 요청하고 싶나요?

산호 제가 문화예술 노동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할까? 재단이나 시에서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인건비성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나마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강사님께 강사비를 드리고 회계, 기획하시는 분께도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업이 교육 사업 말고는 거의 없어요. 배우나 스태프 인건비는 나오지만, 대표자나 연출가의 인건비는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술인형 기본소득’을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전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전에 지원 사업에 참가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 참가비를 받으면 안되고, 수익성 있는 행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진행하면 딜레마가 생기게 돼요. 예술에 지원을 해주셨지만 내가 인건비를 받지 않고 제작비만 받아서 무료로 진행하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계도 어렵고 다음 작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결국 지원사업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반복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참가비를 받아야 하는데, 소비자가 ‘다른 곳은 무료로 했는데 이곳은 왜 돈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쉽죠.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문화예술을 접하는 문턱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고민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현실은 많이 힘든 상태예요. 애초에 지역에서 문화예술가로 활동하면 그에 걸맞은 값을 매기는 것부터 어렵더라고요.

FeW 여성주의 창작은 예술계에서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주



의 창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산호 여성주의 창작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다보니 주로 여성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여성주의 창작을 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고 오히려 되게 편했어요. 있는 그대로 기획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성주의 창작이나 소모임을 기획해서 홍보하면 남성은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고, 존중하는 사람이면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여성주의의 가치가 좋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예술이 여성운동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성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예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내면서 활동하려 해요. 언젠간 저희의 노력이 사회에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요.

FeW 여성 창작자 집단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산호 창작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높은 직급에서 이끌어가는 대다수가 남성이잖아요. 문화예술 작품은 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창작물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만든 작품은 적당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주의 작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좀 더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집단으로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임파워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작품에선 여성이 대상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담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FeW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향후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산호 우선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팀원으로 작업도 하고, 다른 사람들, 단체들과 협업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성 농구 모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할 예정이에요. 가을 즈음에는 음악 공연을 기획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공연을 할까해요. 보통 아티스트가 관객을 위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컨셉을 바꿔서 아티스트 맞춤형 공연을 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외는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관사 내부는 '아티스트의 방'으로 아티스트의 서사를 정리해서 전시회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전에 아티스트와 대화를 해서 어떤 공연을 하고 싶은지 여쭙보고 진짜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FeW 마지막으로 여성창작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산호 지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보고 혼자서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오래 오래 해보아요!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02

여담(女談)

여담의 새로운 도전, 발견, 연결 :  
'꿈'으로 꿈인 여성들



## 여담(女談)

여담(ladyword)은 대전에 사는 여성들이 모여 만든 커뮤니티이다.

대전 여성들의 연결과 지속가능한 일상을 목표로 한  
소모임,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 여담의 새로운 도전, 발견, 연결: '뭉'으로 모인 여성들<sup>4)</sup>

여담(女談)은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여담은 2020년 6월, 잘 보이지 않았던 '지역의 여성'에게 집중해 인터뷰 등을 통해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작년 부터 꾸준히 여성 모임도 진행했다.

#### 정혜용

활동가의 삶을 살며 연대의 감각이 소중하다는 걸 매 순간 깨닫고 있다. 여담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과 연대하고 싶다.

#### 김남지

대전에서 요가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많아 여담의 시작부터 초기멤버로 함께 하여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조혜정

여담 멤버이자 동미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동미는 동그라미를 줄인 이름이다. 지구도 카메라 렌즈도 눈도 동그랗다. 동그란 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기록하고싶다. 이번 활동에는 여담이 주관한 모임의 현장사진 및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 정연서

대전에서 태어나 평생을 대전에서만 산 대전 토박이. 솔직히 가끔 지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담 활동을 하면서 대전을 꽤 좋아하게 된 것 같다.

#### \*길민지

2017년에 입학해 올해로 7년차 대학생이다. 내년 여름에는 꼭 졸업하고 싶다. 이번 학기에는 18학점을 들으며 토익학원에 다닌다. \*올해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느라 지원사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담과 함께했다.





여담 멤버들은 각자 본업을 가진 채로, 그 외 여가시간을 활용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는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활동이나 모임 등을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멤버 모두 지역 여성 모임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여담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올해 여담은 ‘여성의 몸’을 주제로 지역 여성들과 모여 활동했다. 비혼 여성 체육대회 ‘단비’ 부스 참여, 야외요가 클래스,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북토크와 영화 단관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여성들과 함께 몸에 대해 탐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담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지역에서 여성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여담은 앞서 소개했듯,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실 인터뷰는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먼저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연락해 일정을 잡고, 질문지를 만든 후에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이후에는 카드뉴스, 동영상 형태에 맞게 콘텐츠를 편집해 각 특징에 맞는 플랫폼에 게시한다. 이 모든 과정을 딱 10번 반복했더니, 우리는 모두 지쳐버렸다. 또 그 과정에서 여담 멤버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취직에 성공했다. 그로 인해 어떤 멤버는 여담을 떠나기도 했고, 아예 대전을 떠난 멤버도 있었다. 개개인의 중요한 삶의 과정과 함께 고된 여담 활동을 이어가는 건 우리 모두에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무리 의미있는 활동이



어도, 그로 인해 함께하는 멤버가 소진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하고 싶은 걸 물었다. 누군가는 요가를 야외에서 해보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독서모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인터뷰 말고 다른 것들이 하고 싶다는 의견을 종합해, 여담은 올해 인터뷰를 접었다. 대신 우리 모두의 원하는 바를 고려해 주제를 ‘몸’으로 잡았다. 그러면 요가도 할 수 있고, 독서모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은 우리에게 적합한 활동이었다. 본업을 무리 없이 하면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활동하기 좋았다.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도 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을 주제로 단비 체육대회 부스에 참여하거나 야외요가 클래스를 열었고, 여성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과 다양한 ‘몸’에 대해 나눴다.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는 몸, 요가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몸, 미디어에 재현되는 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긍정하는 몸까지. 여성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편견과 상황에 우리 나름대로 맞서 싸우려 애썼다. 다음은 우리가 올해 내내 맞서 싸운 기록이다.

## 활동 결과

### 하나, 단비 체육대회 부스 참여

정연서

#### 활동 동기

단비 체육대회는 2023년을 기준으로 3회를 맞는 비혼 여성들만의 체육대회이다.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전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여성과 만남을 기대하고 여성 커뮤니티 부스 부문에 참여하였다.



#### 활동 일시 (타임테이블)

5월 20일 토요일

13:00 개회식

13:00-13:50 준비 운동, 팀 구성

13:50-14:10 몸으로 말해요

14:10-14:20 이동

14:20-15:00 판 뒤집기

15:00-15:10 휴식

15:10-15:30 줄다리기

15:30-16:00 미션계주

16:00-17:30 부스 집중 시간 ★

17:30-19:00 얼티미트

19:00-19:20 마무리운동, 폐회식

19:20-19:50 물총싸움

#### 활동 내용

운동장에 모인 여성들은 각자 어떤 길을 거쳐 단비 체육대회에 도달했을까. 한 명, 한 명이 가진 운동의 역사가 궁금했다. 그래서 하드보드지에 질문을 적고, 테이블 위에 포스트잇을 두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창시절의 운동장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경험은?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라디오 사연처럼 쌓인 이야기들은 여담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분 공개했고, 사연 당사자에게는 기프트콘 선물을 드렸다.

또 부스 안쪽에서는 여담의 지난 3년에 관한 전시도 열었다. 인터뷰이의 사진과 문장, 진행했던 소모임에 대해 소개했다.

### 활동 회고 및 소감

안 해본 것들을 하자.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팔과 다리를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경기에 나갔는데, 운동장 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100명의 여자들, 그리고 우리 팀! 팀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을 목청껏 응원하는 건 엄청나게 상쾌한 일이구나 싶었다. 내년에 또 만나자는 약속이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서 갓 태어난 기린처럼 뛰어다니는 동안 부스 운영에 집중해주신 타 여담 팀원들(연서 명예 이모들)께 감사드립니다.



## 둘, 부단히 야외요가-여름 야외요가 클래스 (1), (2)

김남지

### 활동 동기

여성의 몸이 어떠하다는 편견이나 제한 없이 그냥 ‘몸’으로서 내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보여지는 몸이 아닌 기능하는 몸으로써 내 몸의 현상태를 알아차리고 사용해 보는 요가 수련 경험을 함께 하고자 야외요가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 활동 일시 (타임테이블)

6월 4일 일요일 / 6월 6일 화요일

10:30-11:50 요가수업 80분

11:50-12:00 정리 및 차담 준비

12:00-13:00 차담 진행 및 개인스냅 촬영

### 활동 내용

지난 가을, 요가 지도자과정을 밟아 이제 막 강사가 된 나는 우연히 경험해본 야외요가 수련에 너무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하늘은 파랗고 높은데,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이자 명상인 요가를 하는 경험은 혼자 하기 아까울 정도로 매우 감격스러웠다. 평소 요가원에서 수련할 때와는 또 다른, ‘자연 속에 내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있구나’ 싶은 강렬한 인상을 받은 나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나의 첫 야외요가 클래스인, 소규모 야외요가 수업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여담 활동의 큰 주제가 ‘여성의 몸’으로 정해지며 야외요가 클래스를 여담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해보기로 계획했다.

여성들은 확실히 ‘몸’에 대해 스스로조차 객체화된 시선을 내재하기 쉽기에, 이번 요가클래스를 통해 보여지는 몸이 아닌 기능하는 몸 그 자체로 ‘나’와 ‘몸’을 느끼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직면하고서 제대로 근육을 사용해 보고 싶은,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의 몸 그대로를 집중하여 느껴보

고 싶은, 기능하는 몸으로써의 내 몸을 알아가고 싶은 여성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연결되고자 했다. 처음엔 '이게 될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6월 여름 시즌 야외요가 클래스는 두 차례 진행하여 총 16명의 다양한 지역 여성들을 만나 요가수련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 활동 회고 및 소감

혼자 야외에서 수련하는 순간이 좋아 그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야외요가 원데이클래스.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고 모집하고 진행하고, 센터 수업과 비교해보면 단순히 공간만 야외로 바뀌는 게 아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도전해보았기에 배웠고, 수정했고, 앞으로도 더 클래스를 지속하고 싶어졌다. 아래와 같은 참여자들의 소중한 피드백 겸 후기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대전에서 야외요가를 함께 하고 싶다.

참여자 1 나무 강사님 덕분에 요가에 흥미를 느끼고 배워볼 마음이 생겼어요-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근육 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오늘 내일은 근육통으로 좀 힘들것 같지만 기분 좋은 힘듦이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참여자 2 요가를 몇번 해보진 않았지만 스쿼트처럼 요가 자세를 따라하는 건 쉬워도 정확히 어디에 힘을 쓰고 어떻게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무 선생님이 비유랑 설명해주시는 게 너무 찰떡이라 이해하기 쉬워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정확한 자세를 할 수 있다는 게 넘 좋았어요! 초보자에게 맞는 시퀀스로 잘 해주신 것도 최고!

참여자 3 날씨와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와 시퀀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대부분 원데이클래스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인데, 이번 수업은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여러 옵션을 주셔서 초보자부터 요가를 했던 사람까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업인 거 같습니다(저는 넘넘 만족했어요). 선생님 티칭이 자세하고, 잘못된 자세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셔서 그 부분도 참 좋았어요



## 셋, 같이뭍담-영화 <그 여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단관

조혜정

### 활동 동기

<같이뭍담>은 같이 Movie(영화)보고 얘기를 나누자는 말의 준말로, ‘뭍’에는 Move와 Movie의 의미가, ‘담’에는 여담(女談)의 담(談)과 같은 의미를 담았다.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누며 그것이 다음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였다. 또 올해 활동 주제인 ‘뭍’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영화 주인공 공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었다.

영화관에 걸음하고, 영화를 마주하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까지가 영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엔딩 크레딧 이후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아도 이야기가 모여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든 나타나길 바랐다. 여기서 가능성은 꼭 자기 계발이나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같은 관심사의 발견, 다른 영화에 대한 호기심 등을 말한다. 여럿이기에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고 싶었다.

### 활동 일시 (타임테이블)

6월 17일 토요일 18:00~19:00 <그 여름>

7월 22일 토요일 13:40~17:00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 활동 내용

#### 1) 영화 <그 여름> 단관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뜻하는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다. 이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영화를 선정했다. <그 여름>은 최은영 작가 동명의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으로, 여성 간의 사랑을 담은 여성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성소수자를 다룬 작품 중에서도 여성 간의 사랑은 그 수가 다른 것에 비해 적고, 또 외설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여름>은 사랑을 담백하게 마주 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의 독립영화관 씨네인디U에서 총 17명의 대전 여성 청년들과 함께 관람했다. 단비 체육대회에서 인사를 나눴던 분들의 얼굴도 많이 보였다. 영화 상영 시간문제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상영이 끝난 뒤 돌아가는 길에 모두 말보따리를 가득 지고 가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이 아쉬움을 다음 단관에서 해소하기 위해 영화 상영 후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단관 및 이야기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 복싱선수의 이야기로, 활동 주제인 '몸'에 알맞은 영화라고 생각해 선정했다.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눈빛 등에 집중해 인물을 담았다. 여성 운동선수를 희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물이 보여주는 태도와 영화 속 이야기가 여성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영화를 본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11명의 대전 여성 청년들이 함께 대전 독립 영화관 씨네인디U에 모여서 영화를 봤고, 그중 8명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 여담 활동, 단비 체육대회 등에서 만난 분과 더불어 여담을 처음 알게 된 분들과 섞여 얘기를 나눴는데, 흔히 미디어





에서 보여주는 영상 및 스토리 문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오는 몰입을 모두 공감했다. 또 주인공이 운동선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격려했다. 영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대화를 풍부하게 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어 영화를 더욱 다각도로 즐길 수 있었다.

### **활동 회고 및 소감**

두 번의 단관을 하며 아쉬웠던 점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를 수용하고 또 끌어 나갈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객과의 대화 등의 경험이 없어 제대로 질문이나 진행 등을 하지 못하고 흘러가듯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대로 좋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또 아쉬웠던 것은 그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서사의 영화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것. 다양한 영화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함께 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엔 아예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었다.

## 넷, 책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북토크 및 '몸' 워크숍

정혜용

### 활동 동기

외모 강박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청소년을 비롯하여 전 연령의 여성들은 가족, 지인, 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의 몸을 품평하고 재단하는 사회 분위기를 접한다. 그리고 그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끊임없이 내 몸을 부정하고 평가하면서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본다. 여담에서 '몸'을 주제로 활동하는 만큼, 일상적인 자기 몸 부정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긍정하는 경험을 통해 내 몸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길 바랐다.

### 활동 일시 (타임테이블)

8월 27일

14:00~15:00 책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북토크

15:00~16:00 참여자와 함께하는 '몸' 워크숍



## 활동 내용

내 몸을 긍정하는 말을 ‘바디포지티브’라고 한다. 한국에서 바디포지티브를 실천하며 그를 자신의 SNS에 기록하여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치도’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해 강사로 모셔 함께했다.

앞선 1시간은 저서인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를 바탕으로 치도님과 북토크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경험을 살려 만든 질문지를 활용해 치도님과 이야기를 주고



고받았다. 다이어트 강박과 섭식장애를 겪어온 치도님의 지난한 삶을 되돌아보고, 그 와중에 깨닫고 실천하게 된 바디포지티브에 대해서도 나눴다. 자꾸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도,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개인의 다짐과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인사로서 몸(외모) 평가하지 않기’, ‘몸(외모) 평가를 듣게 되면 불편하다는 걸 표현해보기’ 등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필

요하다고도 말했다. 특히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몸(외모)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편견에 집어넣게 되는지에 대한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진행자와 저자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고, 참여자와 함께하는 ‘몸’ 워크숍을 진행했다. 내가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뀐 시점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활동지에 적어보는 방식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청소년기에 미디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 몸을 부정하는 경험을 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연애가 내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내 몸을 스스로 어떤 점은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부정하게 되는 경험을 그 자리에 모인 8명 모두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서로의 경험을 듣는 과정이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 모든 여성들이 내 몸을 긍정하고 내 몸의 주도권을 쥌 수 있으면 좋겠다.

## 활동 회고 및 소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과정을 일부러 넣었는데, 특히 그 부분이 좋았다. 어떤 경험은 털어놓기만 해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의 몸은 어떤 수식어를 가진 몸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매일 매 순간 평가당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모객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바디포지티브에 대해 나누고 싶었는데, 또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가 청소년 대상 바디포지티브 도서인 점을 봤을 때 청소년 참여자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모집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청소년을 만나는 기관 등과 소통해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금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선지출 후지급 방식이 매우 불편했다. 여담에는 현재 근로소득을 받는 멤버가 1명 뿐이라 대부분 그의 선지출에 기대야 했다. 만약 멤버 전원이 일하지 않는 등 선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불편했을 거라 예상된다. 전체 지원금을 한 번에 선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다음에는 1개월 당 금액을 정해 선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면 좋겠다.

또한 지역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멤버들과의 치열한 회의, 고민을 통해 기획하는 만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활동을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정혜용**

야외요가 클래스 진행 시 장소 선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접근성은 물론, 야외에서 진행하는 만큼 우천에 따른 일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피했다. 또한 수업을 잘 마치고 나서도 차담이나 촬영 진행 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어 10인 이상을 모집하여 클래스를 진행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느꼈다. 또 지역 여성들과의 연결성의 관점에서는 원데이클래스의 특성 상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뤄지지만, 재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일회성의 만남 뿐이라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가까운 일정으로 한 달 단위로 2-3회차 진행하는 클래스를 열어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김남지**

모임을 기획할 때, 누구든 참여하면 좋겠지만 특히 와주었으면 하는 대상들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닿는 것이 맘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다양한 기관 등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게 어려웠다. 어떨 땐 넘치고, 어떨 땐 너무 적었다. 그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 및 도구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조혜정**

학업과의 병행도 병행이었지만, 내 분야가 없다는 게 가장 불안했다. 북토크 진행, 요가 지도, 사진 촬영 등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를 구축해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었다. 즐거운 게 우선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활동하자고 말해준 혜용 리더에게 감사! 그래도 내년에는 내가 키를 잡고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덧붙여서,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올해 답을 조금 얻은 것 같다. 야외요가 클래스는 팀원의 요가 블로그에서도 홍보했는데, 그랬더니 기혼 여성 등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여담의 기획이 멀리 또 넓게 도달하려면 홍보 창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연서

## 활동 과정을 통한 성장과 노력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한 2023년은 우리 상황에 맞는 활동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작년에는 지원사업 2개를 한꺼번에 진행하며 멤버 모두가 부담을 느낀 데 비해, 올해는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좋았다. 올해 활동을 통해 대전 여성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에서 성평등을 말한다는 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말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담을 3년 넘게 지속하고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우리가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싶다.

**정혜용**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클래스는 여름시즌 클래스뿐이지만, 이전엔 봄시즌, 이후엔 가을시즌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클래스가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의 후기와 피드백 설문조사를 통해 야외요가 클래스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기획을 더욱 촘촘히 해볼 수 있었다. 덕분에 가을 시즌 클래스에서는 요가 수련 후 가장 원활하게 차담을 진행하여 참여자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여성들과 ‘몸’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싹트는 시간이 되었다. 원래 인터뷰 프로젝트를 첫 단추로 하여 여담이 시작된 만큼, 다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은 인터뷰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김남지**

개인의 측면에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경험이 좋았다. 막연히 좋아했던 영화 감상을 프로그램화하면서 혼자 방 안에서 끝났을 영화 관람이 확장되는 경험은 낯선 이와 이야기하기 어려웠하던 나에게 용기를 줬다. 또 요가 클래스의 스냅사진을 촬영하면서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는데, 동시에 사진 촬영이 취미 이상의 범위로 나아갈 땐 책임감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는 앞으로 사진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경험해 본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체로 보면, 이번 활동을 통해 여담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 각 멤버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앞으로 여담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이드가 생긴 것 같다.

**조혜정**

올해 활동 주제를 ‘몸’으로 정하며 생각했다. ‘보여지는 몸’ 관점은 물론이고, ‘정신을 담는 그릇인 몸’ 관점에서 벗어나 보자. 몸은 명백하게 내 일부고, 나는 내 몸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 ‘박동하는 몸’을 가져보고 싶었다. 몸을 항상 그것의 기능에 집중하여 볼 것은 없지만,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여담 일을 통해 매년 새로운 삶을 엿본다. 2020년부터 벌인 여담의 일은 항상 나 좋자고 하는 일이었지만, 행사에 온 사람 중 나처럼 느낀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보람될 것 같다. 지역 여성이 여담으로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정연서**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03

단비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  
우리는 서로의 단비가 되어



##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 단비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삶에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왔다.  
수도권에 비해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 여성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단비는 체육대회, 스포츠 원데이클래스,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스포츠를 통해 지역 여성들을  
더 끈끈하게 연결해주고자 한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 우리는 서로의 단비가 되어<sup>5)</sup>

단비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의 고립이 심화되었을 때 <골 때리는 그녀들>로 동기 부여를 받아 만든 작은 풋살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풋살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친구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만들며 팀 단비가 결성되었다. 오랜 고립으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체육대회가 '일상의 단비'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짓게 된 이

#### 현주

“enjoy, why not?” 다 좋아해서 다 하고 싶은 일별이기 최고 권위자이자 단비의 대표. 행사의 주제 선정, 장소 섭외, 프로젝트 구성원 모집 등 기획의 큰 뿌리를 맡고 있다.

#### 다혜

“좋은데요, 일단 해볼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대표와 하이파이브하는 손뼉을 담당하고 있다. 행사의 컨셉 연출, 일정 관리, SNS 운영 등 기획의 세부적인 즐거움을 맡고 있다.

#### 아사

“운동치이지만 스포츠 행사는 하고 싶어” 핫한 곳을 좋아하는 기획 사색. 구성원과 함께 행사를 기획했으며 단비의 로고와 공식 굿즈를 제작한 단비 브랜딩의 일등공신.

#### 예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요!” 날뛰는 관중 만능캐, 분위기 메이커. 구성원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지지하지 않는 체력과 유쾌한 에너지로 행사의 현장을 진행했다.

#### 민주

“자, 가보자고!” 단비가 기획한 행사의 참가자에서 단비의 구성원으로. 구성원과 함께 행사의 현장을 진행했다.

름이었다. 그렇게 첫 체육대회가 열린 2021년 11월 13일,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예상치 못한 큰 울림을 느끼게 되었다. 빗방울이 모여 메마른 땅을 적시고 내린 비로 땅이 굳듯 잔디밭 위로 흘린 땀방울만큼 끈끈해진 서로의 존재. 이를 계기로 팀 단비는 단체 스포츠를 통해 여성 청년을 연결하고 연결을 지속하는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이후 단비는 고정 구성원을 필두로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바디 스캐닝,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본업과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참가자들의 얼굴과 단비로 인해 연결된 사람들을 보며 단비의 방향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단비’는 작은 모임을 넘어 우리가 걷는 또다른 길이 되고 있었다.

내년에도 단비는 전국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단체 스포츠를 통하여 여성 청년을 연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전의 여성 청년들이 대전 내의 여성, 더 나아가 또 다른 지역의 여성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확장을 경험하고 대전을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단비의 가장 큰 목표는 단비 체육대회의 확장이었다. 목표 인원수를 늘리고 공식 굿즈를 만드는 등 브랜딩을 통해 외부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했다. 규모를 키운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수적이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타겟층이 일치하는 단체 혹은 기업에 후원 제의서를 보냈으며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무모한 시도였지만 한 곳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고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에도 발탁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여성 셀러로 이루어진 플리마켓과 단체 홍보 부스의 천막을 치고, 현장을 진행할 스태프를 모집하며, 체육대회에 알맞은 공식 굿즈들을 제작하는 등 120명의 규모에 걸맞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단비의 색을 잃지 않는 활동을 지속했다. 그동안 <오늘부터 운동동>, <노는 언니> 등 다양한 콘텐츠에 여성의 스포츠가 노출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단비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희극인이자 사격 국가대표인 김민경 선수처럼 총을 쏘보기도 했고, <사이렌: 불의 섬>에 나온 김은별 선수처럼 씨름을 해보기도 했다. 또한 단비 체육대회 또한 여성의 스포츠를 향한 긍정적인 영향에 한 몫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며 영상화 작업을 실행했다.

## 활동 결과

### 제 3회 단비 체육대회



단비 체육대회 공식 트레일러 영상

‘비혼 여성을 위한 축제’를 모토로 기획한 120명 규모의 행사. 체육대회와 더불어 플리마켓, 여상 단체 부스, 현장 이벤트 등 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축제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포토존, 배너, 현수막 등 공식 로고와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요소를 현장 곳곳에 배치했다. 입장권, 클래퍼, 양말, 팔토시 등 체육대회에 어울리는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체육대회는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체육대회만의 즐거움을 살릴 수 있는 종목, 단체 스포츠 리그전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4개의 팀으로 나누어 팀 이름과 구호를 정하고 챌린지 댄스 게임, 미션 계주,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과 함께 뛰놀았다.

단체 스포츠 종목으로는 얼티미트를 선정했다. 경기전 얼티미트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안배하여 얼티미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천막과 부스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음식, 뜨개 용품, 식물, 빈티지 의상 등 여성 셀러 플리마켓, 여성 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 함께라는 의미

현주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지속되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및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 문제가 대두되었다. 극적으로 21년 10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했다. <골 때리는 그녀>와 <노는 언니>의 방영으로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던 중 풋살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모여 풋살 모임을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풋살이라는 스포츠에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풋살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 공을 발로 차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리처럼 단체 운동에 익숙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체육대회를 언급하게 되었고 우리끼리라도 작게 해보자는 의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단절과 고독감으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터놓던 친구들과 만나 푸른 잔디구장을 같이 뛰놀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다가 또 만나서 놀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다. 내일이 기대되는 만남을, 다음을 약속하는 모임이 되고 싶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2021, 2022, 2023년 체육대회 단체 사진

이후 21년 첫 체육대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22년 제2회 단비 체육대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 참여인원이 50명으로 늘었고, 제3회 단비 체육대회에서는 총 120명이 참가했다. 오직 대전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전국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그때까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지역에도 여성 청년이 살고 있다고, 혹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 서로 친구하지 않겠냐고 외치고 있었던 거였다. 예상치 못했던 응답이었다. 21년도 11월 제1회 단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주짓수 수업, 신체 심리치료 수업, 여름캠프, 네트워킹 파티, 레이트 크리스마스, 씨름 수업, 서바이벌 게임 등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매회 새로운 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참가하는 친구들을 만났다. 만날 때마다 반가웠고 기뻛고 함께 함에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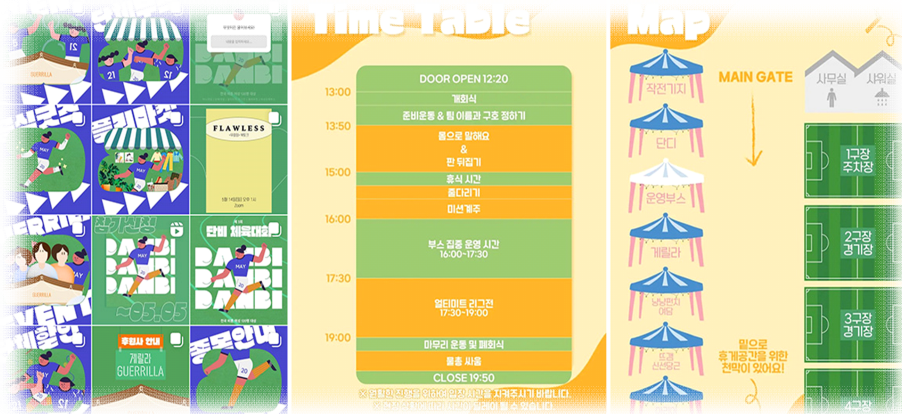
### 얼티미트 리그전 현장 사진

아직도 풋살장에 가서 공을 차고 있으면 여자가 공을 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여자 풋살팀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마치 동물원 속 원숭이를 보는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눈들을 의식해 내가 뛰는 게 우스꽝스럽진 않은지, 가슴이 흔들리진 않는지, 내가 공을 차는 폼이 어색하진 않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보고 패스해 주는 같은 팀원의 눈을 보고, 공이 나아가는 방향을 의식하고, 다른 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풋살 하는 여성을 신기해하며 쳐다보는 건 그만큼 여성들이 다양한 운동 종목을 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를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진행하려 노력하지만 찾아볼 때마다 얼마나 운동이 남성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풋살은 <골 때리는 그녀들>이 방영되고 나서 여성팀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타 종목들은 아직도 여성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가려 한다. “가보자고”를 외치는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하길 바라며 2024년을 기대해 본다.

## 온전한 여성의 운동장으로

다혜

“체육대회 할까?” 시작은 꽤 가벼웠다. 활동 중인 풋살 모임에서 30명은 모을 수 있을 테니 소규모로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스포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음에도 규모에 대한 갈망이 일었다. 지금이 도약점임을 안 이상 이대로 서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가보기로 했다. 대전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대전으로. 그렇게 겁도 없이 '전국 여성 120명 대상'이라는 말을 공식 포스터에 넣었다.



### 단비 인스타그램 업로드 콘텐츠

'전국'이 붙은 만큼 더 넓게 뿌어야 했고 더 먼 거리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했다.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업을 했고 브랜딩을 위해 로고와 캐릭터, 공식 굿즈를 제작했다. 매일같이 SNS에 올릴 홍보이미지를 만들었고 팀원들과 함께 세부적인 일정과 기획을 조율했다. 목표한 규모만큼 각자 팀원으로서의 역량도 성장해나감을 느꼈다. 그만큼 즐겁고도 치열했던 날들의 마지막 날, 비로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서울, 부산, 인천..... 전국에서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단비 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숙소를 잡은 참가자들도 있었다.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위해 열 맞춰 줄을 서자 한 구장이 가득 찼다. 그들은 명찰에 붙은 이름을 보며 인사를 건네고 구호를 외치며 팀워크를 다졌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단비를 시작했을 무렵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과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에선 살살이 찾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 내내 뛰놀던 참가자들이 모여 진지한 표정으로 섰다. 팀 스포츠 종목인 얼티미트의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얼티미트뿐 아니라 팀 스포츠를 처음 해보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여자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장을 누비는 종목은 남자의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운동을 할 때마다 여성에게는 못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권유하고 "여자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런 환경에서 오롯이 스포츠에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 얼티미트 리그전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원반이 하늘을 가르자 선수들은 망설임없이 달려나갔다. 원반을 잡고 설 수 있는 시간은 단 10초. 목에서 피 맛이 날 때까지 달렸다는 그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숨을 몰아 쉬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빛내며 원



반을 던지던 순간을 얘기했다. 체육대회마다 팀 스포츠 종목을 넣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운동은 그 자체로도 즐거울 수 있고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팀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당연한 전제를 몸소 경험하는 시간. 그 순간들이 모인 운동장은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찼다.



### 체육대회를 마무리하며

어느새 날이 어둑해졌다.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며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온종일 함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운동장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같은 땅 위를 달리고 누구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운동장.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싶어졌다. 얼마 후 단비 체육대회를 계기로 얼티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 우리가 바라던 게 이런 거였어.

## 가까워진 몸과 몸 사이

아사

[전국 120명의 성인 여성이 하나의 운동장에 모였다. 단지, 운동을 하기 위해]

단비 체육대회는 올해 3회차를 맞이하지만 규모는 매년 배로 늘었다. 올해 100명을 목표로 하면서 모집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많은 사람이 왔다, 엄청난 홍보가 아니었음에도.

세상에, 운동을 원하는 여성이 이렇게나 많다.

대한민국에서 그릴 수 있는 여성의 일생을 생각해 보자. 여성이 단체 운동을 할 시기는 만 20세 전까지만 중고등학생의 체육대회, 체육시간이 전부이다. 성인 여성의 운동은 개인 PT, 요가, 필라테스 등 비교적 정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이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모순적이다.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여성'이란 삼삼오오 모여 다닌다던데, 모여 다니는 운동에 그동안 여성이 있었던가. 여성도 모여 운동하고 싶다.

체육대회 기획을 했지만 사실 나도 처음에 체육활동이 어색했다. 체육시간을 싫어하던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어린' 나는 단체 운동이라고 하면 피해 다니기 바빴다. 못해도 괜찮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먼저 겁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난 체육대회는 '못해도 괜찮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서로 운동하며 으샤 으샤 하는 여성들을 보며 그 안의 신뢰가 두텁게 느껴졌다. 나처럼 겁먹었던 사람들도 운동 실력이 어쩔든 간에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단비 체육대회 운영자인 우리가 이끌어 낸 게 아니다. 참가자들 스스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믿고, 응원하고, 성장했다.



줄다리기 현장 사진

[숨을 돌리고 주변을 돌아본다.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

단비는 그런 참가자들 덕분에 올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브랜딩이었다. 단비 로고를 만들고 메인 컬러를 정했다. 넓은 들판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꿈꾸며 메인 컬러는 짙은 초록색으로, 또 멋지고 귀여운 한 명 한 명의 단비 참가자(운영진도)를 떠올리며 귀여운 로고로 정했다. 공식 굿즈로 체육대회에서도 신을 수 있는 양말과 팔토시도 만들었다. 양말을 산 사람들이 발을 짚 내밀고 자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단비 양말을 신은 발들



길었던 준비 기간과, 정신없는 그날의 체육대회가 끝나가며 겨우 숨을 돌린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발갛게 상기된 얼굴들, 한층 높아진 목소리들, 더 가까워진 몸과 몸 사이의 거리감들을 느끼며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단비는 대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 여성들이 찾아오는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한 얼굴의 참가자들을 떠올리며 더더욱 체육대회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24년 체육대회는 더 많은 여성과 함께할 예정이다. 단비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여성들이 유대감과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단비의 활동을 꼭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비 로고와 굿즈 홍보 콘텐츠

##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 활동 내용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이란 간이 장애물에 몸을 숨기며 레이저 건을 발사해 상대방 조끼에 부착된 센서를 명중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말한다.

주로 6:6, 총 12명의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총 3경기를 진행하는 단체 경기이기도 하다.

실탄이 장전된 총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총을 쥐는 것부터 낯설어했기에 총에 대해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경기에 앞서 총을 쥐는 법, 개머리판에 맞춰 초점을 맞추는 방법, 과녁을 맞추는 방법을 배웠다.



총의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뒤 각종 장애물과 장애물이 설치된 경기장에 진입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총 3게임을 진행했다. 게임마다 경기의 형식이 달라지기에 팀원과 상의 하며 작전을 짜고 역할을 분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렇게 공격과 수비 등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단결력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 게임을 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멋있는가?

예지

올해 5월 체육대회가 끝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낸 뒤 두 달 만에 스텝들이 모였다.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체육대회 이야기도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모였다. 평범하게 카페에 가고 밥을 먹고 끝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인가. 전국 여성들을 불러 모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함께 뛰논 여성들이다. 이왕 모인 김에 특별한 레크리에이션을 하자는 의미에서 '레이저 태그'를 하게 되었다. 레이저 태그란 레이저 총을 들고 센서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두 팀으로 나뉘어 서바이벌을 즐기는 게임이다.

총과 게임, 대한민국에선 흔히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 둘을 합친 총 게임에서는 다른 게임에서보다 더 많이 여성들을 배척한다. 여성 유저들이 전체 유저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음성 채팅에서는 여성 유저들을 향한 성희롱, 욕설이 오고 간다. 여성 유저에 대한 비하 표현도 많이 존재한다. '헤지'란 실력 있는 다른 유저 실력에 편승하여 승점을 얻어가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여왕벌' 등이 있다. 이처럼 여성 게이머들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배척당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란 듯이 무게가 현실로 느껴지는 레이저 총을 들고, 서바이벌 현장으로 뛰쳐나갔다. 총과 게임, 전우애와 사명감은 남성들만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9명의 여성들의 서바이벌이 시작되었다. 레이저 총에는 각자 이름이 있고, 총의 소유자는 그 닉네임으로 불리게 된다. 한 게임이 끝나면 중앙에 놓인 화면에서 게임 결과가 뜬다. 누가 가장 많이 득점을 했는지 등의 경기 현황이 게임 성적표에 뜨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열정은 더욱 불 지펴졌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맞추기 위해 숨을 골랐다. 적을 발견하면 우리 팀에게 목이 터져라 "여기 있다!"를 외쳤다. 이윽고 가지고 있던 총에서 "으악!" 소리가 들리면 각 팀에서 희비가 갈렸다. 비록 대전 시내 한복판 실내에서 진행된 서바

이별이었지만 심장박동과 긴장감만큼은 현실처럼 와닿았다.

흡사 넷플릭스의 인기작 '사이렌'의 군인팀이 된 것 마냥 벅차올랐다. 그 속에서 전우애도 느껴졌다. 내 앞의 팀원이 쓰러지지 않게 내 몸을 날려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적으로 게임하는 여자는 얼마나 멋있는지, 온몸을 움직이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비록 다음날 견지 못할 통증이 내 다리를 덮쳤지만 서바이벌 태그를 했던 순간의 설렘은 심장에 굳은살처럼 박혔다.



단비 체육대회에서 만난 인연 덕분에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움직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우리의 인연을 이어준 체육대회에서 그랬듯이!

## 여자 씨름 클래스 및 대전씨름스포츠클럽 대표 인터뷰

### 씨름 클래스



#### 활동 내용

예능 <씨름의 여왕>, 영화 <모래바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여자 씨름을 다루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에서 강함과 근육으로 옮겨지며 주짓수, 유도 등 격기에 도전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단비는 여자 씨름을 직접 배워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씨름에 대한 이론을 들었다. 씨름은 하체에 무게 중심이 있어 여성에게 유리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운동이라고 한다. 실습에 들어가며 씨름단의 감독과 선수에게 살바를 매는 방법을 배웠다. 이후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씨름의 기술인 ‘발다리 걸기’와 ‘배지기’를 익혔다.

기술을 익힌 후에는 참가자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시합을 했다. 하루만에 습득한 기술임에도 꽤 능숙하게 시합을 펼칠 수 있었다. 씨름의 장점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클래스가 끝난 후에는 대전씨름스포츠클럽의 김병일 대표를 인터뷰했다. 운영 중인 여자 씨름단의 선수들은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자 씨름의 장점과 매력을 말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에서 열정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 〈인터뷰〉

대전의 여자 씨름단을 이끌고 있는 대전씨름스포츠클럽의 김병일 대표(이하 대표)의 인터뷰.

단비 스포츠로서 여자 씨름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대표 남자만 씨름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자 씨름 장사들이 인기가 더 많은 세대입니다. 씨름은 순발력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고 상대방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씨름에는 조상의 슬기와 힘과 기가 담겨진, 국기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엔 태국 씨름, 일본 씨름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씨름은 기와 힘이 조화된 씨름이라 인정받고 있어요. 순발력과 지구력, 긍지와 자부심으로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자 씨름은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비 대전에서 여자 씨름단을 창단한지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창단을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 대전은 씨름의 불모지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씨름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이름을 알렸지만 사정상 해체가 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그 공백을 메우던 중 조기찬 부회장이 여자 씨름에 뜻이 있어 가능성 있는 여성 체육인들을 영입하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씨름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단비 씨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이 없는 대전에서 여자 씨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표 대전광역시 씨름협회 산하에 있는 대전 씨름 스포츠클럽에서 여자 씨름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미약했으나 작년 전국 체전에는 체급별로 1명씩 총 5명이 출전했고 생활체육대회에선 입상을 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는 내년 2024 유성온천 장사씨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황을 위해 대전광역시 씨름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유성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비 <노는 언니> <씨름의 여왕>에서 여자 씨름이라는 종목이 TV에 등장했고 올해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에 여자 씨름 선수가 출연하며 여자 씨름을 직관하러 가는 등 여자씨름 팬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자씨름에 대한 인기가 올라간 것을 체감하고 있나요? 여자씨름단이 느끼는 여자씨름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표 우선 실업팀이 많이 창단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인기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팀뿐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여자씨름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비 마지막으로 여성의 운동 목적이 미용에서 강함과 근육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도, 주짓수, 복싱과 같은 격기를 일반인 여성이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으로서 여자 씨름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대표 씨름 또한 유도, 주짓수, 복싱과 비슷한 유술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배울 수 있는 유술이 바로 씨름입니다. 또한 150가지의 기술을 배우며 두뇌 플레이를 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듯 씨름은 안정적인 자세, 기술, 근육 3박자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체험해보셔서 알겠지만 단시간에 시합을 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비 그렇다면 일상에서 여자 씨름을 배우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곳 대전씨름스포츠클럽으로 오면 될까요?

대표 네 맞습니다. 대전씨름스포츠클럽은 대전의 유일한 생활체육 씨름도장입니다. 언제든지 씨름을 배울 수 있도록 감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으니 여자 씨름에 관심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활동 에세이

### 근육으로 세워진 믿음

민주

명절에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씨름 경기에서 모래판 위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은 덩치 큰 남자들뿐이었다. 비록 연습용 매트였지만 그랬던 씨름판에 직접서 보니 왠지 비장한 마음이 들었다. 어디 가서 힘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던 어머니 말씀과 반대로 어디서든 힘을 써야 할 때는 곤잘 나서곤 했지만 이 씨름판은 정말 당당하게 힘자랑하기 참 좋았다.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는 힘 센 것이 딱히 자랑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과소평가되기 일쑤지만, 운동을 하면서 내 근육과 힘이 자랑스럽고 어디서 뭘 하든 내 삶을 일궈나가는데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라났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씨름을 배워보고 싶었다.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성공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 04

작당모의

이제 금융과 투자는  
여성이 돼서야.



##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 작당모의

대전에 정주하는 것이 꿈인 여성들의 경제 독서 모임.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공유하고,  
홀로 독립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한다.

## 이제 금융과 투자는 여성이 대세다.

###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작당모의〉는 대전에 거주하는 2,3,40대 비혼 여성들로 구성된 경제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출신 지역은 모두 다르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대전이라는 도시를 낡은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여성이 홀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투자를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산 관리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활동 결과

##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독서 모임

### 토론거리

- ☆ 나는 금융문맹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을 해야할까?
- ☆ 위의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을까?
- ☆ 수동소득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나에게 돈이란 어떤 존재인가?



봄 저는 금융 문맹 맞는 것 같고요.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관심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투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에게 돈이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현아 수동소득을 만들기 위해 지금 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봄 저는 주식도, 연금 저축도 다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하며 많이 배워서 뭐든 다 하고 싶어요.

낸시 저는 스스로 '금융문맹까지는 아니지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는 부동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며 내실을 다졌던 시간이 있어서 문맹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 관련 책 읽고, 경제 신문 보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현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 흐름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요즘은 전에 했던 경제 공부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냐? 하면 글썄요. 하루에 20~30분 정도 신문 읽는 시간 정

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종목만 사들이는 적립식 주식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바라고, 인생의 목표인 어떤 존재입니다.

사공 금융문맹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질문에서 나온 '수동소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아 금융 문맹이 맞는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경제 콘텐츠 보기, 그리고 경제 서적 읽기를 하루 1시간씩 잡아서 일주일에 7시간 정도로 계획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적금, 개인연금 저축, 그리고 북미 펀드에 한 달에 한 번씩 투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을 때 저도 흐름을 타서 삼성전자, 2차 전지 ETF, 애플, 그리고 암호화폐를 소량 구입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란 나에게 산소, 나를 살게 하고,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온 세상에 있는데 나 자신은 잘 체감할 수 없어서.

손 저는 금융문맹까지는 아니고 금융초보는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겠고, 경제 뉴스에 나오는 말들을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주 1회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 중개형 ISA 계좌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으로 매달 ETF 상품을 구입하고요. 주로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에요.

현아 혹시 어떤 ETF 상품에 투자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손 작년에는 사실 공부를 안 하고 S&P500 미래 tiger라는 상품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사기만 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S&P 지수 투자, 토탈 리턴이라고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KODEX, 또 분산 투자를 위해 채권이나 금, 반도체 ETF 종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직관에 따라 투자하고 있어요. 나에게 돈은 & 꼭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게 해주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수단

&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현아 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금융문맹에서 투자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정말 경제에 관해 무지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멘토로 삼을만한 여성 투자자분을 만나게 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결국에는 전업 투자자가 됐어요. 저는 미국 기술주 투자자고, 현재는 보유 자산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느라 주식을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뉴스 읽기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경제 금융 용어 700선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뉴스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파일 안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투자 공부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으로 잡았어요. 예전에는 모르는 단어들을 찾느라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는 경제 뉴스 전문을 읽지 않고도 헤드라인만 읽었을 때 충분히 대략적인 정세 파악이 가능해서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그리고 수동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저도 한 종목에만 소수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돈을 매우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액수가 커지면 겁도 나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어떤 책에서 이 의식을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인생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반려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을 간단히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 다른 경제 투자 서적이 그러하듯 이 책도 역시 독자를 4인 정상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자녀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하지만 금융문맹이나 입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방식은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공부 클럽 같은 것들이요.

사공 한국에서는 돈에 대해서 직접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일을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돈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 하는 문화를 비교해서



전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금융에 대해 무지하고, 투자를 게을리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원금보장형 상품에 적립을 돈을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봄 노동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정의가 쉽게 쓰여 있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본 여성들이 노후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요인뿐만은 아닌데, 여성 의제에 대한 이해 없이 일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 활동 내용 정리

### 〈기업의 IR자료 분석〉

좋은 투자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사람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는 영업보고서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의 이해〉

실제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등락이 언제나 같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 실물경제가 좋다 해서 주식시장도 반드시 호황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입니다.

### 〈자본가로 살 것인가? 노동자로 살 것인가?〉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 외에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자본가와 노동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일해서 급여를 받으면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급여를 투자하면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하는가?〉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외부 환경이나 주식시장 상황에는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긴 시간을 함께할수록 결과도 좋을 것이므로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한 매도 요인란 예를 들어 경영진이 비도덕적으로 변질되었다거나,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 없이 폭등한다거나,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제품이 소용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독서 모임

### 토론거리

- ☆ 나는 투자자인가? 도박꾼인가?
- ☆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 ☆ 투자자라고 답했다면, 투자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 ☆ 투자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사공 저는 도박꾼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흘러가는 정보를 듣기만 하고 주식을 샀거든요. 미국 기술주 ETF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했고 실패

경험 이후 현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낸시 저는 투자자입니다. 투자해 본 경험이 있고, 자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공부와 함께 경제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소비를 하는 사람에서 투자하는 사람으로 감정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정체화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고, 이유는 다양한데요. 기업 자체의 리스크와 시장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를 구분하지 못했고,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려다 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소문을 듣고 매수한 종목도 있고요. 또 실패한 후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후 기업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핑계로 관심 없이 방치하는 것도 전부 다 실패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손 저는 투자자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SNS에서 '#비혼 여성의 재테크' 의제가 유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 경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정보를 많이 접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무료 리딩방 같은 곳에 정보를 알려고 들어갔어요. 추천해주는 종목을 따라서 매매했다가 이익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방이 없어서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샀던 종목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판단해서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해 보고 팔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국내 주식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었는데 언제 팔지 몰라서 계속 갖고 있다보니 지금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손절을 안 했지만 이것도 실패 경험이라고 봅니다.

봄 투자자는 아닙니다.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실패하는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아직 안 했어요.

NAM 저는 투자자입니다. 앞으로의 예상 수익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짜본 경험이 있고, 작지만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요. 혼자 내 노년을 보살펴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만 한다면 미래에 제가 꿈꾸는 일들을 실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아는 기업도 아니고, 공부 안 했는데도, 그냥 남들이 다 사고 끌린다는 이유로 산 결과, 제 때 사고 팔지 못하거나, 떨어지고 있는 걸 참지 못하고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 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으로 목적으로 매도해서 실패했습니다.

현아 그러면 지금 한 분 빼고 투자를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신 거네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또 앞으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게 될 우리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투자자이고,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정의하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기는 저번 시간에 말씀 드린대로 여성 전업투자자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감흥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책을 보다가 주식 투자가 저와 천성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이 무너진 상태라 이후에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초심자의 행운을 얻었죠.

그러나 저에게도 투자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친구가 주식 투자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계좌 개설까지는 혼자 했는데, 매수/매도 주문 넣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제가 줌으로 제 컴퓨터 화면을 띄워 놓고 HTS로 매매 시범을 보여줬어요. 첫번째 화면에 급등주 종목들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 중 하나를 샀어요. 사고 나서 다음날 60%가 오르고, 그 다음날 100%가 오르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저는 항상 매매 원칙을 세워놓고 또 목표 금액을 정해놓는 방법을 고수했거든요. 그때 제가 배당주 고정수익을 위해 코카콜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팔고, 그 급등주를 샀는데 제가 매수한 날 투기 현상이 극심해져서 그

종목에 거래 정지가 걸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계속 수직으로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80%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거는 못 버티겠다 싶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팔았거든요. 이후 정신 승리를 하고 잊고 살았죠. 나중에 어떤 분과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기업 경영진 교체가 호재로 인식되면서 제가 샀던 금액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데, 저는 이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로 제 돈을 넣어서 투자했고, 그 돈을 잃어 봤고,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요인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자기 돈을 잃어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더 크지 않았을 때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다행이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경험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파민에 휩쓸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기준 없는 매매를 했고, 뉴스에서 나오는 급등주는 절대로 사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손 주식 리딩방이나 SNS, 블로그에서 보는 정보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헛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투자할 기업을 제대로 알기까지 정성껏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공 우리가 자세한 투자 기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통해 돈과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이 책을 보고 함께 공부하며 기초적인 경제 용어, 재무제표 보는 법 등을 학습하게 되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책의 파트들을 정리한 강의를 들은 후 책에 나온 예제를 직접 풀어봤는데, 배운 것들을 바로 익힐 수 있어 유익했어요.

## 활동 내용 정리

〈불안은 무지로부터 출발한다〉

주식 투자 시 필요한 기초 용어 학습(ROE, PER, PBR), 매도/ 매수 체결 순위, 시장 대세 판단

〈본인에게 맞는 투자 목표 설정〉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금이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뉩니다. 투자하는 금액은 당신의 쓴 시간과 정성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잘 안다고, 공부한다고 한들 그것의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굳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치화된 기준입니다.

## 〈시장 원리 이해하기〉 경제 보드게임

두 팀으로 나누어 경제 원리를 익히는 보드게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 활동 내용 정리

〈뤼앙의 사람들(A팀 - NAM, 사공, 낸시)〉

중국 서부에 있는 도시 '뤼앙'을 배경으로 한 수확 게임으로, 작물을 심은 뒤 수확하여 규칙에 따라 매매하는 과정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후와 대지의 특성마다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이 다르고,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수레에 남은 소비되지 않은 작물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행동 카드에 의해 사고 파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는데, 이것은 투자 활동에서 정책과 이슈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변동이 생기는 점을 반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를 축소판으로 경험하며 흥미롭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경우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룰에서는 레버리지의 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NAM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전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고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게임으로 체험하는 것도 좋은 공부 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공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유지하며,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현실이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 환경, 수단은 성공을 위해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중간 중간 체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 〈아그리콜라(B팀 - 손, 봄, 현아)〉

농사부터 산업 기술까지 생산 수단을 확보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비축한 식량이 부족해 가족 구성원을 굶기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게 자산 및 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유리한 조건, 환경, 수단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용 생산, 혹은 인적 생산을 할 때는 보유 식량, 곧 자산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또 재테크를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실제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위한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 농사에서부터 기술까지 근대시대에 할 수 있었던 경제활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특히 가족

을 부양한다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게 되었어요.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서 실제 저의 직업을 수행할 때의 감정을 느꼈고, 더 큰 자산 규모를 이룩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봄 실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경제 보드게임 룰이 익히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작당모의 팀원들과 경제를 공부하며 알아가 보자' 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어려운 게임(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 활동 회고 및 소감

사공 역사에서 오랜 시간 여성은 경제의 주체가 아닌 서포트 하는 역할로 인지되었고, 저도 모임 전까지 경제에 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어요. 팀원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돈의 본질, 경제적 독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성들끼리 경제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거든요. 특히 지역 기반



모임은 더더욱 없었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애 주기 계획에 대한 막막함이 해소되었습니다. 투자는 어려운 것이라는 관념이 굳어져 있었는데, 사고가 유연해지며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다고 느꼈어요. 남성들끼리 꾸준히 이야기 해온 이 영역이 유독 나에게 낯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문해보니, 어쩌면 이렇게 마음 편히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통해 도서비 지원을 받게 되어 모임 참여에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덕분에 모임이 주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여성들이 경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NAM 모임을 거듭하며 돈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어요. 서로 같거나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며, 돈에 대한 시선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이 지나가며 삶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작당모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다짐만 했던 경제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한 단계씩 나아가고 발전하는 성장, 추구해야 할 삶의 형태를 갖춘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해도 반복에 휩쓸려 결국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저에게는 경제 공부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배워야겠다고 다짐만 했던 것들을 직접 배우게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 시간들은 분명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배우게 된 것들, 돈에 관한 가치관과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더 발전적인 삶에 대한 동기 부여와 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경제는 사회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매 회차 당시의 경제 이슈를 팔로우하며 사회의 시류를 읽는데에도 큰 도움이 됐고요.

사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때, 특히 팀원들끼리 물리적 거리가 있는 경우 공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로 시간이 갈수록 모임의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가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모임의 성격에 필수적인 도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아 여성의 생애 주기와 경제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면, 가정에서부터 딸과 아들이라는 이유로 받는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 달라져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적은 자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을 강요당하는 쪽은 늘 딸에게만 일어납니다. 또 독립을 위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채용과 임금에서부터 차별을 받고요. 그렇게 적은 임금으로 쉴 틈 없이 일하고도 경력은 단절 당하고, 결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둘 다 낮은 곳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참 다층적이고도 끈질긴 불평등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의 가장 큰 타겟은 여성인데 반해 재테크, 투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할 여성은 소비의 타겟으로만 산정되고 이미 여성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남성은 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영역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대해 평소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모임을 지속하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봄 주변에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스스로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엔 어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당모의를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본 이론을 공부하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많이 얻기도 했고요. 특히 비혼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동료 의식이 더욱 강해졌고,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 투자 관련한 저명한 저자들 중에는 보통 남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는 남자들의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작당모의 멤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니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투자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정적으로 팀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모임을 하려면 공간대여가 필수였는데,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손 인터넷이 발달하고 책은 소설 또는 교양서만 조금 읽어왔고, 경제에 관한 것은 대부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알아왔어요. 독서 모임을 통해 다함께 경제에 대해 읽고 생각을 나눈다는 게 원론적이면서도 오히려 요즘 세상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정리된 내용을 의식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문장이나 단어마다 각자의 의견을 던지고 엮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직장인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과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활동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매일 경제 공부를 해야하며 투자는 결국 요량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경제 모임마다 그 주에 화제가 되었던 종목과 경제 토픽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 공부를 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투자 지식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 **활동 에세이**

**박현아**

저는 2년 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기 위해 대전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훗날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에 정주하고 싶어하는 여성 청년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들은 이방인인 저를 환대해 주었고, 저는 너무나 포근하게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저희는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되면 여기에 타운하우스 지어서 같이 살자. 텃밭도 일구고, 계절마다 제철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매년 여기저기 여행도 가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비슷하게 낭만적이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데도 당장 ‘너 얼마 모았어?’ 하는 질문에는 속이 상하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급급한 우리에게 꿈은 점점 막연하고 요원해집니다.

작당모의 첫번째 시간부터 우리는 외면해왔던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직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는 돈에 얽힌

나의 사연과 감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 밝히는 여성'은 세속적이고 천박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회차가 거듭되며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숫자와 회계용어가 가득한 머리 아픈 책들을 함께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막막했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작당모의 활동에서 얻게된 지식과 용기는 계속되는 여정의 단단한 발판입니다. 이 자신감을 토대로 우리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두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2023년 지역 청년활동가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성과 공유집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